

# 국제지역분쟁의 지리교육적 접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례로\*

조성욱\*\*

## The Geography Educational Approach to International Regional Conflict: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Sungwook Cho\*\*

**요약** :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지리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틀은 National Geography Standards(1994)의 4가지 관점(공간적 관점, 생태적 관점, 역사적 관점, 경제적 관점)을 활용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공간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쟁의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생태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파급 효과와 영향을 살펴보았다. 4가지 관점은 하나의 현상(국제지역분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 유용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지역분쟁 사례에 대해서 지리교육적 접근방법의 틀을 구축하는 것은 다양한 사례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지리교육의 사례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우크라이나, NGS, 공간적 관점, 생태적 관점, 역사적 관점, 경제적 관점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how to approach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in terms of geography education.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used four perspectives (spatial, ecological, historical, economic) from the National Geography Standards (1994). First,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is situation was examined and the cause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spati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and the ripple effects and influence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ecolog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It was confirmed that the four perspectives are useful frameworks for comprehensively examining an international regional dispute phenomen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a geographic approach to the ongoing cases of international regional conflicts can enrich geographic education by enabling various case studies development.

**Key Words** : Ukraine, NGS, Spatial perspective, Ecological perspective, Historical perspective, Economic perspective

### I. 서론

국제지역분쟁은 한 국가 내에서의 분쟁, 두 국가 간 분쟁, 다수 국가가 관련되는 문제 등 지역적 범위가 다양하다. 분쟁의 원인은 민족문제, 종교분쟁, 영토분쟁, 패권추구, 식민지배의 유산 등으로 다양하며, 분쟁의 유형은 내분형, 혼합형, 국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한방,

2002).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국경선을 따라 북부, 동부, 남부의 3개 방면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표면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시도와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두고 있다. 이미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내부의 혼란

\*이 논문은 2023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u.ac.kr)

상황을 틈타 남부의 크림반도(크림반도)를 점령하여 편입했고,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침공은 두 국가 간 분쟁(국제형)에 해당하며, 영토분쟁 및 패권추구와 민족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세계지리 교육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분쟁이라는 점,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조건, 러시아 팽창정책의 역사적 과정,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정당성, 지역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계적인 대응, 세계화된 지구촌에 미치는 영향과 형태, 이 전쟁의 승패여부가 다른 지역 지역 분쟁 및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지리교육 특히 세계지리교육에서 국제지역분쟁을 수업 소재로 활용할 경우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와 국경선을 맞닿아 있는 우리의 현실(후전상태)을 재인식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와 우리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 및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년이 지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현재진행형인 국가 간 지역분쟁을 지리교육에서 어떻게 접근하여 이해하고, 지리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한다. 국제지역분쟁을 지리교육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National Geography Standards(NGS, 1994)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 관점을 활용했다. 현재진행형인 국제지역분쟁에 대한 교사의 종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바탕으로 학습 상황과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국제지역분쟁 사례를 지리교육에 도입할 경우, 학문적 틀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후의 응용 및 심화 과정으로 도입할 수 있고,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지리 학습에서 중요한 학습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럽과 러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 인식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유용성도 있다.

## II. 국제지역분쟁에 대한 지리교육적 접근 방법

### 1. 국제지역분쟁에 관한 연구 동향

국제지역분쟁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보다는 국제정치학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최근(2000년대 이후) 연구대상으로 한 국제지역분쟁을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표 1), 구소련 지역과 중국 관련 분쟁(남중국해)에 대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관한 연구는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분쟁에 관한 연구가 있다(이유신, 2007).

지리학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국제분쟁에 관한 연구로는, 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대하여 정치지리학적 분석과 문화역사지리학적 원인을 고찰한 연구(이한방, 2002)와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국가의 행위를 분석한 연구(지상현, 2014), 우크라이나가 동서부로 분열되어 대립하는 지정학적 특성을 다중스케일적 접근으로 분석한 연구(이동민, 2022) 등이 있다. 이한방(2002)의 연구에서는 국제적 영향력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분쟁지역의 유형을 내분형, 혼합형, 국제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상현(2014)의 연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 전쟁 초기에는 지리적 인접성이 중요하지만 전쟁이 확산됨에 따라 동맹관계, 기존에 유지되어온 적대적 관계와 이로써 생성되는 국제관계의 네트워크 구조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동민(2022)의 연구에서는 2022년 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원인을 다중스케일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 지리적 관점에서 다양한 국제분쟁을 소개한 책이 있다(이정록, 2005; 2019; 구동희, 2010).

그리고 지리교육에서 이루어진 국제지역분쟁에 대한 연구로는 자원 갈등의 사례로 카스피 해의 자원 분쟁 문제를 중심으로 호수바다의 논쟁을 넘어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접근과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대안을 제시한 연구(김한승·최재영, 2017)가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을 사례로 우리나라 영토교육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이상균 등, 2017), 우리나라 영토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지리교육에서 관계론적 장소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

표 1. 국제지역분쟁의 연구 지역 분류(2000년대 이후)

연구 지역	연구 분쟁 지역(저자, 연도)
1. 구소련 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이주연, 2021)/몰도바-트랜스드니에스트리아 분쟁(김성진, 2014)/체첸 분쟁(박정호, 2005)/조지아 갈등(이영형, 2015)/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이유신, 2007)/카스피해 유전(윤영미, 2005)/북극해 해양 분쟁(윤영미, 2010)/페르가나 지역(김광철, 2011)
2. 중국 관련 지역	중일 해양영토 분쟁(김진욱, 2020)/남중국해 분쟁(석두식, 2020)/다오위다오·센카쿠(이동울, 2015)/중러 국경 분쟁(박만준·마민호, 2019)/스카버러 숯 영유권 분쟁(박광섭, 2015)
3. 아프리카 지역	나이지 델타 지역 분쟁(박정경, 2007)/남북 수단 분쟁(조상현·김상문, 2013)/말리사태(변용, 2014)/카메룬 나이지리아 영토 분쟁(이근관, 2010)
4. 유럽 및 중동 지역	이라크의 종파 분쟁(인남식, 2011)/키프로스과 북아일랜드(안정은·권주현, 2021)/아랍-이스라엘 분쟁(전광호, 2011)
5. 중국 외 아시아 지역	인도-파키스탄 분쟁(이은구, 2002; 전광호, 2017)/미얀마 종족문제(김인아, 2018)
6. 아메리카 지역	에콰도르-페루 국경 분쟁(이상현·박윤주, 2015)/말비나스 영유권 분쟁(노용석, 2012)

하고, 국가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리교육의 내용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연구(박배균, 2013), 본질주의적 영토관에 기반한 기존 영토교육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연한 영토관에 기반한 영토교육을 제안한 연구(최영진·백일순, 2021) 등 영토교육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접근방법 측면에서는 역사와 지리적 관점의 동시 접근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 이순신 장군 해전지 답사코스 개발을 사례로 역사적 장소의 답사코스 개발이 역사 주제의 시·공간적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송언근, 2016)와 전쟁사를 역사와 지리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방법이 지리교육의 저변 확대와 학제간 융합 및 통합적 사고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이동민, 2021)는 연구가 있다. 교재개발 측면에서는 청송을 사례로 지질 공원 관련 콘텐츠를 교육교재로 개발한 연구(김민성 등, 2018), 특정 상황에 적용가능한 구조화된 지식 및 연결 묶음인 스크립트 개념을 도입하여 지리적 사고를 촉진하는 교재개발의 전략을 제시한 연구(양병일, 2015), 고차적 사고력을 육성하기 위한 비계 문제를 활용한 교재 개발 연구(양병일, 2017) 등이 있다.

이와같이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 연구되어 온 국제지역분쟁은 다루어지는 분쟁지역이 제한적이며, 특히 지리교육에서는 영토교육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리교육에서는 더 다양한 국제지역분쟁 사례가 학습 교재와 사례로 개발되어 영토교육 뿐만아니라, 지역분쟁의 공간적 특성 이해와 함께 종합적인 지역이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지리 학습의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지역분쟁을 지리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과 스케일에서 접근하여 전개과정, 분쟁의 원인, 그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며, 지리적 관점뿐 아니라 역사적 관점까지를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에 의해서 학습자의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은 상황의 총체적 이해와 함께 해당 국제지역분쟁에 대해서 학습자 자신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교사에 의한 1차적인 이해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 학교급별이나 학습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교재개발보다는 지리적 관점으로 국제지역분쟁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National Geography Standards(1994)에서 제시하는 4가지 관점을 기본 틀로 하여 우크라이나 사태를 접근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지역분쟁 사례를 활용한 학습은 평화교육(Peace Education Handbook for Educators, 2023), 정치지리학(Stoltman and DeChano, 2002), 영토교육, 지역지리학(세계지리) 측면의 교육과 관련된다. 그리고 학문적 틀에 기반한 접근보다는 이슈중심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기초지식을 학습한 후 응용과정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양한 사례가 개발되어 학습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은 러시아와 유럽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의미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2022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22)에서는 ‘통합사회 2[10 통사2-04-02]’와 ‘세계시민과 지리[12세지04-03]’ 과목에 관련 내용이 설정되어 있다.

## 2. 지리교육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접근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제지역분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으로 National Geography Standards(1994:57-58)에서 제시한 4가지 지리적 관점(Geographic Perspectives) 즉, 공간적(spatial) 관점, 생태적(ecological) 관점 그리고 역사적(historical) 관점, 경제적(economic) 관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이것을 지리교육에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4가지 관점 중 지리적 현상을 보는 핵심 관점은 공간적 관점과 생태적 관점이고, 역사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은 보완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지역분쟁을 지리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지리교육의 유용성 측면과 분쟁 상황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위의 4가지 관점을 정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용해 보면, 첫째, 공간적(spatial) 관점은 어디에서? 왜 거기에서? 와 같이 어디(whereness)가 핵심적인 이슈이다. 이 관점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상황과 유형 그리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가 동부와 북부에서 국경선을 넘어 침공했다는 점, 북쪽의 접경국인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동조하고 있다는 점, 국경에 가깝게 위치하는 수도 키이우의 지리적 위치(국경에서 90km)로 인한 문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높은 러시아인의 분포 비중, 서부에서 국경을 접하는 폴란드로의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유입,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게 흑해의 역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탄한 지형적 조건, 드니프로 강의 역할, 유럽 지역 전체의 공간적 스케일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 등 많은 공간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즉, 공간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살펴보면, 이번 전쟁의 전개과정의 특징과 전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생태적(ecological) 관점은 인간의 행위는 로컬이나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의 생존 능력을 변형시키고 영향을 준다는 관점으로, 인간 행위의 영향은 특정 사टना 사건의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측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생태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살펴보면, 단순히 러시아가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

공한 두 나라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 영향이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정치적 측면, 군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생태적 관점은 이러한 연결성과 복잡성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한 관점이다. 공간적 관점이 사태 발생의 원인을 이해하게 해준다면, 생태적 관점은 그 파급 효과와 영향을 이해하게 해준다.

셋째, 공간적 관점의 보완적 관점으로 역사적(historical) 관점이 있다. 역사적 관점은 공간적 관점에 더하여 언제? 왜 그때? 등의 질문을 통해서 현재 나타난 현상의 시간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해준다. 즉, 역사적 관점은 현재 상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설명해준다는 측면에서, 공간적 관점과 상호보완적 관점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가 성립 과정과 그동안의 역사적 관계에서의 분쟁 요인, 1991년 소련에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나타난 크림반도 문제,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와 포기 과정,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게 된 러시아인의 문제, 2014년부터 시작된 돈바스에서의 분쟁 등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원인을 시간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공간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은 하나의 현상을 공간과 시간적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사태 발생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관점으로 역할 한다.

넷째, 생태적 관점의 보조적인 관점인 경제적(economic) 관점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식량, 주거, 교통, 여가 등을 충족하기 위한 물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교환에 관심을 가지는 관점이다. 경제적 발전과 변화는 지구상에서 모든 사회와 문화 사이의 상호의존을 증가시켜 왔다.

경제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살펴보면, 소련 해체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상호관계가 증가되었고, 교통과 통신의 기술적 변화는 세계 사람들 간의 경제적 교환을 더욱 확장시키고 가속화시켰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연결 사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네트워크 단절은 두 나라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경제적 관점은 우크라이나 상황에 따른 에너지 원과 곡물의 공급문제, 공산품의 연결기술, 서비스 등의 연결 문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같이 NGS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리교육의 4가지 지리적 관점은 하나의 현상 또는 국제지역분쟁을 발생 원인과 이후의 영향 측면에서 입체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간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은 분쟁이 발생한 이유와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생태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은 분쟁으로 인한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유용한 방법이다(표 2).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리교육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국제지역분쟁의 상황 발생과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분쟁 발생 상황과 과정을 인식하고, 다음에는 왜 거기에서 국제지역분쟁이 발생했는가를 공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발생 원인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측면까지 확장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생태적 관점에서 국제

지역분쟁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다양한 측면 즉, 정치적(군사적) 측면과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분쟁 발생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5단계 접근방안을 제안한다(그림 1).

### III. 4가지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접근 사례

####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개 과정과 세계의 대응

##### 1) 전개 과정

2022년 2월 24일 5시(한국시간 24일 정오, 7시간 차이) 러시아는 동·남·북부 방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표 2. 4가지 관점에서 본 우크라이나 사태

관점별	주요 내용
공간적 관점	*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측면과 유럽과 러시아의 공간적 측면 1)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측면(위치적 측면) 2) 우크라이나의 자연지리적 특성 3) 러시아의 원중국 확보 노력과 NATO와 EU의 확장에 대한 위협 4) 흑해의 의미와 중요성
(역사적 관점)	* 두 나라의 역사적 관계와 분쟁 발생 원인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가 성립 과정과 역사적 관계 2) 소련과 러시아의 팽창정책 3) 우크라이나 내의 러시아인 분포 원인
생태적 관점	*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연쇄 효과 1) 정치적 측면(UN의 결의안, 러시아의 고립, 전 세계 여론 악화) 2) 군사적 측면(러시아군의 문제,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수 지원) 3) 사회적 문제(피난민 문제, 민간인 학살 문제, 원자력 시설, 인재 유출) 4) 문화적 측면(우크라이나의 정체성 형성, 언어와 지명 문제)
(경제적 관점)	* 경제적 측면에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에너지원 공급 측면(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2) 곡물 공급 측면(곡물 수출, 운송 문제, 가격 상승, 기아발생 등) 3) 공산품의 공급체인 문제(반도체 생산, 희소자원 공급 등) 4) 금융 등 서비스 측면(금융망에서 퇴출 등) 5) 교통망 제한 측면(육상 및 항공 교통의 단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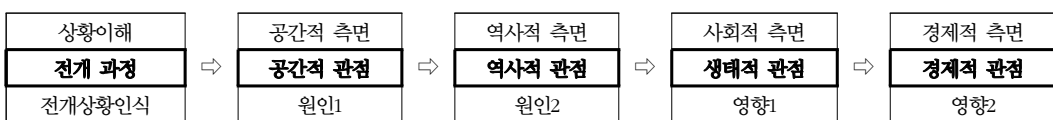


그림 1. 지리교육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접근 과정

러시아는 단기전으로 수도인 키이우(키예프)를 점령하여 친서방의 젤렌스키 정부를 친러 정권으로 교체하고,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와 루한스크)을 점령하여 크림반도와 연결시켜 아조프해를 내해로 만들고, 헤르손을 점령하여 크림반도의 물류라인과 수자원을 확보하며, 오데사를 점령하여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지역과 연결하여 흑해의 제해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그림 2). 러시아는 2014년 크림(크림)사태 때 서방세력이 경제제재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크림반도 점령을 확실하게 하고,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며, 유럽인들에게 러시아에게 저항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정서를 심어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Zeihan, 2017, 홍지수 역, 2019:184).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도 크림사태 때의 무기력한 대응과는 달리 병력이 5천명에서 20만 명으로 증가했고, 두 차례의 시민혁명(2004, 2014)의 경험으로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저항,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서 확인된 민간인 학살에 따른 굳은 항전 의지, 넓은 국토, 서방세계의 군수물자 지원 등을 기반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동안 크게 4단계의 큰 변화가 있었다(표 3). 먼저 1단계는 2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이루어진 3개 방면(수도 키이우 방면, 동부 돈바스 방면, 남부 크림반도 방면)으로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 단계이다. 단시간에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하고 친러 정권으로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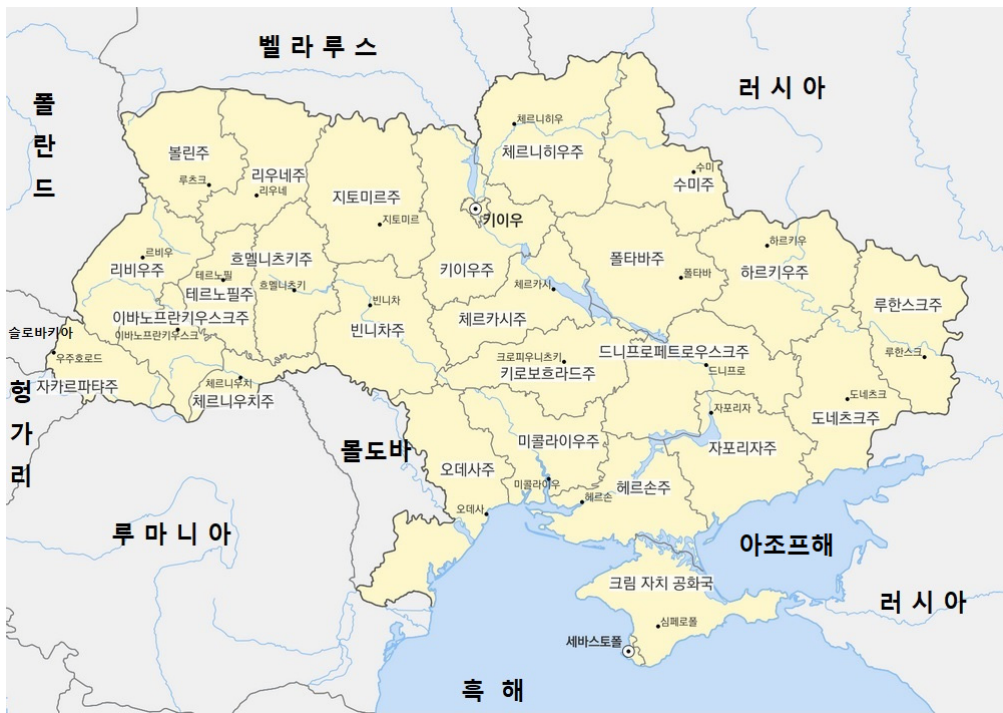


그림 2. 우크라이나와 주변국

출처 : 나무위키(우크라이나 행정구역도), <https://namu.wiki/w/우크라이나>

표 3. 러시아 침공 전개과정의 단계별 변화(2022년)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자별	2.24~4.5	4.6~9.11	9.12~10.7	10.8~
주요사항	동부와 북부 방면 전면 침공	동부 방어 집중	4개주 편입	4개주 방어와 미사일 공격

2단계는 4월 6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루어진 동부(루한스크, 도네츠크)와 남부(크림반도 북부의 자포리자, 헤르손)의 집중 공격 시기이다. 이 시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 진격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동부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 그리고 크림반도와와의 연결 지역(자포리자, 헤르손)에 집중했다. 러시아는 2014년에 확보한 남부의 크림반도와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의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지점인 헤르손(2022.3.4)과 마리우폴(2022.5.21)을 점령하여 동부와 남부를 연결하고, 오데사를 공격하여 우크라이나의 흑해 접근을 봉쇄하려고 했다. 이 시기 이후 전선의 변화는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단계는 9월 12일 우크라이나가 제2의 도시 하르키우(하리코프) 일대를 회복하자, 러시아는 동남부의 4개주(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헤르손주)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2022.9.24-27), 9월 30일 러시아에 편입하였다(4개주는 우크라이나 면적의 15%(9만km<sup>2</sup>), 인구는 20%(890만에 해당). 러시아의 의도는 우선 동남부 4개주를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하고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 영토 공격으로 간주하여 자위를 위한 핵무기 사용까지를 위협하기 위해서였다(그림 3). 이와 함께 예비군 30만 명의 동원령을 내렸으나(2022.9.21), 우크라이나의 진군이 계속되어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4단계는 10월 8일 케르치 해협에 위치하는 크림대교

폭발사고와 이에 따른 보복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파괴하는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시기이다. 러시아는 무기 등 군수 공급의 어려움, 군 동원령에 따른 내부의 반발, 에너지 자원의 수출 감소에 따른 전쟁 경비 충당의 어려움, 전세의 불리(헤르손에서 철수, 2022.11.9) 등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이 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국면 전환, 벨라루스를 통한 수도 키이우의 재공격, 주변국으로의 확산 가능성 그리고 러시아가 패배를 인정하고 4개주 및 크림반도에서의 철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의 극복 정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의 내부 사정 변화 등 많은 변수에 의해서 가변적이다.

## 2) 세계의 대응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와는 달리 서방세계는 UN에서의 러시아 고립(2022.3.3, 철수 결의안 채택), 국제결제망(SWIFT)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는 등의 경제제재(자산동결, 러시아 영공경유 금지, 러시아산 에너지 자원의 수입 제한 등)와 군수품 지원(스팅어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 세계적 여론 악화(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러시아의 퇴출 등), 국제적 연대(러시아에 대한 해킹, Starlink 연결 등) 등으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 하락, 러시아 주식시장 폭락,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 러시아군 장악지역 변화

■ 러시아군 장악 ■ 러시아군 지배 주장 ■ 러시아군 공격 ■ 우크라이나군 탈환 및 반격

그림 3.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변화

출처 : 중앙일보(2022년 6월 3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398>

데 동참했다(한국일보, 2022년 6월 9일자).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키이우 인근 도시인 부차(2022. 4.5)와 하르키우의 이지움(2022.9.15)에서 발견된 민간인 학살에 따른 여론 악화와 UN 인권위 이사국 자격 정지 결의안 통과(2022.4.8) 등으로 러시아는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1991년 구소련의 해체 이후 진행되어 온 세계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해 온 현재의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연결선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자원, 식량, 반도체, 교통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탄소중립화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방세계는 단결하여 러시아의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과 팽창정책이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 세계 경제의 파급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패권 경쟁이지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경쟁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중앙일보, 2022년 3월 30일자). 즉, 서방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개념인 정의, 공정, 정직, 자유, 휴머니즘 등에 대한 도전과 가치 경쟁과 국제 질서에 대한 위협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와 전제독재 국가와의 가치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 2. 공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에서는 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적 특성, 우크라이나의 자연지리적 특성, 지정학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완충국 확보를 위한 노력과 NATO와 EU의 확장, 흑해의 의미와 중요성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 1) 우크라이나의 위치적 특성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160만명(2021년), 면적은 60만 3,500km<sup>2</sup>으로, 유럽에서 인구규모로는 8위, 면적으로는 4위(러시아, 튀르키예, 프랑스, 우크라이나)에 해당하며, 수도는 북서쪽에 위치하는 키이우(키예프)이다(외교부). 삼면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특히 러시아와는 평지

(드니프로강 유역)와 구릉지(중앙러시아 고지)로 연결되어 있다. 남쪽만 바다인 흑해와 면해 있는데, 대부분의 곡물 수출은 흑해의 해운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동쪽과 북쪽은 러시아, 북쪽은 벨라루스, 서쪽으로 몰도바·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남부의 흑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그루지아(조지아) 등 6개국에 접하고 있는데, 흑해는 튀르키예의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다넬즈 해협을 거쳐 지중해에 연결된다.

### 2) 우크라이나의 자연지리적 특성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 남부와 모스크바 서부에서 시작되어 우크라이나를 관통하여 흑해(오데사)로 흘러가는 드니프로강을 따라 중부 그리고 남부의 흑해 연안에 평탄지가 형성되어 있다. 지역구분은 드니프로강을 경계로 서부의 산지지역(카르파티아 산맥)과 동부의 구릉지대(중앙러시아 고지), 그리고 남부의 크림반도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동부의 돈바스 지역(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은 석탄과 철광석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평야 지역의 일부로 평균고도 175m로 비교적 평탄한 지역인데, 중부 지방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드니프로 강(2,290km)을 따라 드니프로 저지대를 형성하며, 서쪽으로는 카르파티아 산맥(240km) 사이로 드네스트르강이 동서 방향으로 흘러 흑해로 유입된다. 남부의 크림반도는 흑해와 아조프해 사이의 지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조프해와 흑해는 케르치 해협으로 연결되고 있다(그림 4). 하천들은 대부분 남부의 아조프해와 흑해로 유입되는데, 특히 드니프로강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중요한 하천으로 수력발전과 관개를 위한 댐이 많이 건설되어 있다. 남부의 도나우강은 루마니아와의 경계가 된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의 온대 기후권에 속하며, 연강수량은 400~600mm이다. 겨울에는 서쪽이 동쪽보다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내륙인 동쪽이 더 더우며, 흑해 연안은 겨울에 따뜻하게 특히 크림반도의 남쪽 연안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연평균기온은 북쪽이 5.5~7°C, 남쪽은 11~13°C로 다양하다(다음백과). 강수는 북서부 지방에 많이 내리고, 동부와 남동부 지역은 적은 편이다. 눈은 11월말과 12월초에 집중적으로 내리며, 북부 지역





그림 4. 우크라이나의 지형 조건

출처 : GRID-Arendan, 1998, <https://www.lu.lv/sgc2011/eng/next-year-to-lviv/>

에는 3월(눈과 얼음의 해빙)과 11월경(가을비)에 진흙으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라스푸티차(rasputitsa) 현상이 나타난다.

토양은 체르노젠크(chernozem, 흑토, 흑색초원토)으로 부식도가 1m 이상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검은색을 띠며 농업에 적합하다. 체르노젠크는 주로 퇴스 또는 빙성(氷成) 퇴적물 위에 발달한 토양이며, 비교적 건조한 지역으로 세계적인 밀 생산 지대이다(권혁재, 2006:39; 전종환 등, 2015:477).

### 3) 러시아의 완충국 확보 노력과 EU 및 NATO의 확장

1991년 소련의 고르바초프(1985~1991 재임)가 공산주의 중주국의 위치를 포기하자, 소련 내의 공화국들이 연방에서 탈퇴하여 15개(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국가로 독립하였다.

1991년 이전 소련은 동부유럽 국가들(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을 완충지대로 서부 유럽의 NATO 및 EU와 대치했다. 그러나 이 후 동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소련 내의 공화국이었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까지 독립하고, 특히 수도인 모스크바에 가까이 위치하는 발트 3국과 우크라이나의 EU 및 NATO 진출에 위협을 느꼈다(벨라루스는 친러시아 정부).

러시아는 서방세계와 러시아 사이에 완충지대를 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목적이 달성되면, 이후 핀란드, 발트 3국 그리고 카프카즈 산맥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루지아(조지아)에 대해서도 같은 목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러시아의 이러한 완충지대에 대한 욕구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발트 3국(2004년 나토 가입)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NATO 가입 희망, 2022.5.15), 그루지아(EU 가입 희망), 덴마크(EU 공동방위 정책 참여, 2022.6.3)가 위협을 느껴 오히려 EU와 NATO에 가입하여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게 되었다. 전쟁을 통한 이웃 국가의 침공은 주변국의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위기감만을 심어주어 거시적으로는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유럽 단일 시장을 지향하는 EU(European Union, 1957년 창립) 회원국은 27개국이다(2020년 영국 탈퇴)(그림 5).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 1949년 창립)는 군사동맹체로 한 회원국이 비회원국의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는데, 회원국은 30개국이며, 그루지아와 스웨덴 및 핀란드가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유럽 국가들과 1991년 독립한 공화국들의 나토가입과 희망(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 4) 러시아에게 흑해의 의미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자치권 확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흑해의 제해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부동항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의 흑해함대는 2014년 크림반도 영토편입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1년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러시아의 농업 및 공업 기반의 상실, 인구의 상실 그리고 흑해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권 상실을 가져왔다(Brzezinski, 1997, 김명섭 역,

2000:127).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1991년 14개 공화국의 독립으로 발트해의 지배적 지위를 잃었고(발트 3국), 특히 우크라이나의 독립으로 흑해의 지배권을 잃었다.

러시아는 부동항인 흑해로 진출하기 위해서 오스만 투르크를 대상으로 크림전쟁(1853~1856)을 일으켰으나 패배하여 흑해 제해권을 상실한 경험이 있으며, 크림반도는 1921년 소련 연방에 편입했다가 1954년에 우크라이나로 편입되었고, 1991년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혁명을 계기로 크림반도를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하고,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케르치 해협에 교량을 건설하였다(크림대교는 2018년, 철도는 2019년 완공).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여 크림반도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아조프해를 내해로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 지역을 점령하여 흑해의 제해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흑해 진출은 흑해 연안의 그루지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등의 국가들에게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원희, 2009; 고재남,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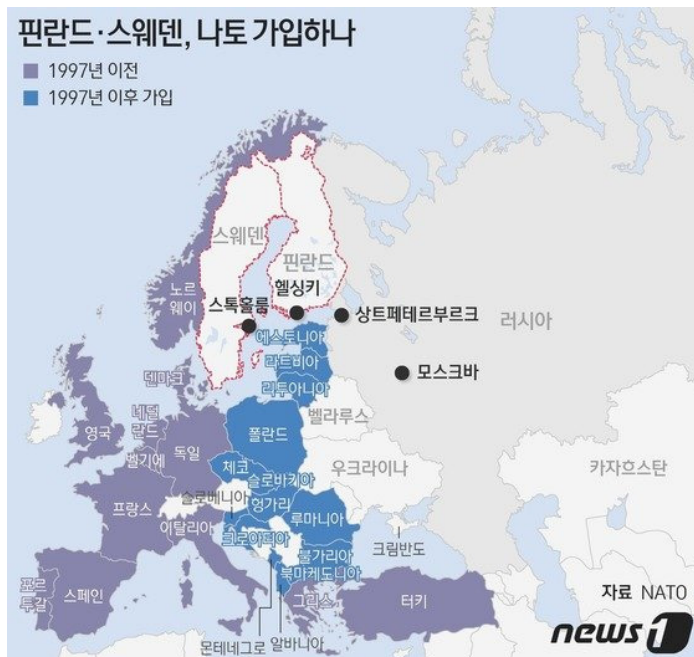


그림 5. NATO 가입국 현황

출처 : News1(2022년 4월 14일자),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4/12/5314931/article.jpg>

### 3. 역사적 관점

역사적 관점은 시간적 측면에서 이번 전쟁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 그리고 러시아의 팽창정책(러시아 제국, 소련 포함)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의 분포 원인 등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

현재의 우크라이나 영역은 1954년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때에 형성되었고(크림반도 편입), 1991년 그 대로 독립하였다. 우크라이나 지역에는 기원전부터 스키타이인, 고트족, 훈족, 마자르족 등이 거주했으며, 5-6 세기에 슬라브족이 우크라이나 서부와 중북부의 삼림 및 삼림-스텝 지대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 후 발트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드니프로 교역로를 지배한 바이킹이 현재의 수도인 키이우(키예프) 지역을 중심으로 키이우 루스(882~1240)를 세웠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기원이다(黒川祐次, 2022, 60). 14세기에는 북쪽의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대부분을 합병했으며, 서부(갈리치아 공국, 중심지 르비우)는 폴란드 왕국, 남부는 킵차크 한국(1243~1502)이 통치했다. 이후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1569~1795)과 모스크바 공국을 이은 루스 차르국(1547~1721) 및 러시아 제국(1721~1917)의 세력이 교차되는 지역이었으며, 1648년 폴란드에 대항하는 호멜니츠키의 봉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18세기 3차례에 걸친 폴란드의 분할(1772~1795,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3국)과 함께 이루어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변화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정치 및 사회 분열의 뿌리가 되었다(허승철, 2011:47).

1차 대전 이후 우크라이나인들은 서부와 동부에 각각 민족 공화국을 선포했으나, 1922년 소련에 편입되었고, 1930년대 초 스탈린에 의한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농민들의 저항과 소련의 곡물 압류로 인한 기아가 발생하여 600만 명이 아사했다(1932~1933)(黒川祐次, 2001, 안선주 역, 2022:235). 이 후 2차 대전 때 우크라이나 독립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서부 지역의 독일 나치 동조와 러시아(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의 기원이 되는 키이우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통성과 정체성 문제는 이번 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구자정, 2023:278).

우크라이나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발생했으며, 2004년 대통령 선거의 부정 선거에 반발하여 정치적 시민저항인 1차 오렌지 혁명이 발생하여 재선거가 치루어졌다(유센코 당선)(허승철, 2011:283). 2014년에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EU와의 조약 협상을 중단하자 친유럽 정책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2차 오렌지 혁명(유로마이단 혁명)이 발생하여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되고 러시아의 개입으로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었다.<sup>1)</sup> 이와 함께 러시아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서는 분리·독립 요구가 높아져 내전으로 발전했다.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동서로 분열된 이유는 첫째, 서부 지역이 비교적 습윤한 삼림지역이면서 키이우 루스의 발상지였던 것에 반하여, 동부 지역은 건조한 스텝지역으로 유목민의 활동지역이었다는 점, 둘째, 1648년에 봉기한 호멜니츠키가 러시아와 맺은 안드루소보 조약(Andrusovo Treaty, 1667)에 의해서 드니프로강을 경계로 동부는 러시아령, 서부는 폴란드-리투아니아령으로 명문화한 이후 동부가 러시아로 편입된 점, 셋째,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제정러시아의 흑해연안 항구도시(세바스토폴, 오데사, 헤르손 등) 건설과 돈바스 지역의 중공업 개발과 함께 이 지역에 러시아인이 대거 이주한 점, 넷째,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이후 국가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분리주의가 표면화된 점, 다섯째, 러시아 푸틴의 전략과 EU 및 NATO의 영역 확대 그리고 흑해 제해권을 중심으로 한 충돌, 여섯째, 유럽의 지원으로 진행된 2004년의 오렌지 혁명과 2014년의 유로마이단 혁명(서부지역 중심)과 우크라이나의 유럽화에 대한 동부 지역의 반발 등이 현재 우크라이나 동서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동민, 2022).

#### 2) 러시아 제국과 소련 그리고 러시아의 팽창 정책

서구열강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에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기에 러시아 제국은 동부의 시베리아로 진출했다(1580~1784)(Salter *et al.*, 2000:177). 특히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부의 발트해(1721년 스웨덴과의 전쟁), 남부의 흑해(1856년 크림전쟁) 그리고 동쪽으로는 만주와 한반도로 진출했으나(1905년 러일전쟁), 번번이 영국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 의해서 막혔다(造事務所, 2008, 안정미 역, 2020:133).

그리고 소련의 발트해 확보 과정에서 1939년 핀란드 침공, 한반도 진출과정에서 1950년 6.25 남침, 인도양으로의 진출 과정에서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이 있었다. 1991년 이후 러시아는 체첸 전쟁(1996, 1999), 그루지아의 남오세티아 전쟁(2008), 크림반도 점령(2014)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와같이 러시아 제국과 소련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만주와 한반도, 흑해, 발트해 진출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팽창정책을 시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발칸반도, 캅카스산맥, 중앙아시아, 극동 시베리아로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은 부동항이면서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지가 위치하는데,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크림반도의 안정적 확보, 아조프해의 내해화, 흑해의 제해권 확보를 의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흑해를 상실하면 내륙국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제약으로 무역과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흑해와의 연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모두에게 중요한 지리적 전략 포인트이다.

### 3) 우크라이나의 인구 및 민족 구성

우크라이나의 민족 구성은 우크라이나인 78%, 러시아인 17%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우크라이나정교가 67%, 기타 가톨릭교와 러시아정교를 믿는다(외교부).

남부의 크림반도와 동부의 루한스크 및 도네츠크 지역은 러시아인의 비율이 50%를 넘는다. 이러한 인구 분포 특성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적 성향, 러시아어의 사용 비중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 동부와 서부의 지역 차이를 유발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국가정체성 확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그림 6). 이러한 동부와 남부 크림반도의 러시아인 집중 거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 4. 생태적 관점

생태적 관점은 하나의 현상에 의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영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정치적(군사적)인 연쇄 반응과 사회적(문화적)인 연쇄 반응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1) 정치적(군사적) 연쇄 반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2022.2.24) 서방세계는 UN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 철수 결의안을 채택했고(2022.3.3),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2022.3.24), 러시아의 UN 이사회에서의 퇴출 결의(2022.4.7),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병합하려 하는 러시아 규탄(2022.10.12)을 결의했다.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는 나토 가입의사를 밝혔고, 서방세계는 나토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개입 대신에 군수지원을 시작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평화회담(3.28, 5차 회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을 열어 6개항을 협상했으나(나토가입철회, 러시아어 사용 허용, 비무장화, 안보보장, 크림반도 문제, 돈바스 문제),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철수한 키이우 주변의 도시인 부차에서 학살사건이 발견되면서(2022.4.5) UN 안보리가 소집되고, 각국에서는 러시아의 외교관을 추방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는 기존 무기 및 병참 고갈, 사상자 수 증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 러시아 군대의 약점 노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의 증가로 인한 국제여론 악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문제 악화, 서방세계의 단결 등으로 오히려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러시아가 불리해지자 벨라루스 참전 가능성, 더 강한 무기의 사용, 핵무기 사용 위협,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림 6.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계 주민 비율

출처 : 한겨레(2014년 4월 29일자),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34914.html>

러시아는 1991년 14개국의 독립으로 인하여 외국에 남겨진 러시아인을 2,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NATO와 EU의 확장으로 러시아가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 북한, 인도, 사우디 등은 기회주의적인 애매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카틴숲 학살사건(1940)을 겪은 폴란드는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며,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번 전쟁은 1939년 히틀러의 수에덴 지역 점령과 비교되면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을 방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팽창정책이 성공할 경우 한반도, 타이완, 발트 3국, 스칸디나비아 3국, 동부유럽, 그루지아, 몰도바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정치적 측면에서는 타이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천연가스, 원유, 곡물 공급의 차질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군사적 측면에서는 핵무기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 협정(1994)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안보에 불안을 느낀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 계획을 밝혔고, 덴마크와 그루지아 역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등 러시아의 전쟁을 통한 완충국 확보 노력은 오히려 서방 세계의 단결력을 높이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2) 사회적(문화적) 연쇄 반응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서 러시아 대표는 각종 국제회의, 스포츠 대회의 참가가 거부되었으며, 외교관은 추방되고, 외국거주 러시아인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 반대 시위, 러시아 상품 보이콧, 경제적 구호 활동, 피난민 지원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외국 기업과 고급 노동력의 이탈, 경제 제재로 인한 부품 수입의 어려움,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자원 의존 약화(한국일보, 2022년 8월 3일자), 예비군 징집령(2022.9.21)으로 인한 탈출러시와 내부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인구의 1/4인 1,000만 명이 피난을 떠났고(2022.8.3. 기준, UN) 이 중 50%가 폴란드로 향했다. 남성 징집으로 인하여 피난민은 노인과 여성이 주를 이루면서 피난 국가에서의 성비변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발칸반도 국가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쟁이 단

기전으로 끝날 경우 대부분 귀국하지만,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피난 국가에 정착하게 됨으로써 유럽의 인구 구조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일보, 2022년 5월 2일자).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러시아의 무자비한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민족 분포와 관계없이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단결하여 원래 러시아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는 훼손되고 고립되어 가고 있다. 특히 부차에서의 학살(2022.4.5)이 알려지면서 국제여론은 큰 전환점을 이루었다.

‘어나니머스(anonymous)’의 러시아에 대한 사이버전 선포(무전해킹, 방송해킹 등),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가 우크라이나에서 서비스된 것은 이번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sup>2)</sup>

또한 그동안 러시아식 발음으로 불리어 온 지명들을 우크라이나식 발음으로 바꾸고, 러시아 관련 지명(467개)도 바꾸기로 했다(뉴시스, 2022년 3월 2일자; News1, 2022년 4월 28일자)(표 4). 그리고 러시아의 무자비한 민간인 공격으로 러시아에 호의적이었던 동부 지역 주민들까지 러시아에 대해서 혐오를 느끼고, 러시아어 대신에 우크라이나어 학습과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경향신문, 2022년 5월 30일자). 이와같이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문화적 연결선을 끊고,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지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어로 언어의 전환현상은 그동안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불분명했던 우크라이나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전쟁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크라이나

표 4. 우크라이나의 지명 변화

러시아 지명	우크라이나 지명
키예프	키이우(크이우)
크림반도	크림반도
리보프	르비우
니콜라예프	므콜라이우
체르니고프	체르느하우
하르코프	하르키우
루간스크	루한스크
드네프르	드니프로
키예프 루시 공국	크이우 루시 공국

출처 : 뉴시스(2022년 3월 2일자).

의 국민이라는 동질성이 형성되고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5. 경제적 관점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쇄 반응은 에너지 측면(석탄, 석유, 천연가스), 곡물 공급 측면, 공산품의 체인 문제, 금융 등 서비스 산업, 교통망 단절 등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 1) 에너지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서방세계에서 처음 취한 경제제재 조치는 독일의 노르드스트림2 송유관 사업 중단 등 러시아로 부터의 에너지 수입 금지였다(News1, 2022년 9월 28일자).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정부 예산의 36%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에너지 수출 차단은 러시아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한겨레 21, 2022년 3월 12일자).

그러나 러시아산 에너지원의 수입금지에는 천연가스 40%, 석유 25%, 석탄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EU 등 서방세계에도 타격을 주어(연합뉴스, 2022년 4월 17일자), 에너지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원자력 비중 축소 정책의 재고, 탄소중립화 정책의 지연 등의 고통을 주고 있다. 또한 에너지 물류는 쉽게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노선을 확보할 때까지 서방세계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23년 1월 19일자). 그러나 EU는 석탄 수입금지, 해상운송 석유 수입금지(2022.5.31), 천연가스 수입금지, 석유가격 상한제(2022.12.4) 등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는 NATO 가입을 희망하는 핀란드에 대해서 전력 공급과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고(2022.5.21), 루블화 결제를 반대한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2022.4.29) 자국의 에너지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 2) 곡물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문제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흑토와 함께 세계 식량의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주요 곡물 수출이 어려워졌고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등에서는 기아문제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80%가 이루어지는 흑해 연안이 봉쇄됨으로서 곡물 수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식량 부족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자 UN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가 이스탄불에서 만나 오데사항 등 3개 항구에서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을 보장하는 흑해의 곡물 수출입선박의 안전보장에 합의했다(문화일보, 2022년 7월 23일자).

이번 전쟁으로 인한 곡물 공급망의 차질로 인하여 해바라기유 등 식용유 가격이 상승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치킨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밀의 가격 상승은 빵과 짜장면, 옥수수에는 사료값에 영향을 주어 육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사람들의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등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의 상황을 느끼게 되었다.

### 3) 공업 체인의 단절로 인한 문제

러시아가 점령을 시도하는 돈바스 지역은 구소련 시절부터 석탄과 철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Salt et al., 2000:198), 우크라이나 석탄매장량의 63%, 금속 42%, 희토류 등 주요 광물 33% 등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와 우크라이나 경제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일보, 2022년 8월 12일자).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공급하던 희소자원과 특수가스(네온, 제논, 크립톤)의 공급망 차질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반도체의 마이크로칩(microchip)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리콘으로 만든 표면에 레이저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깎는 작업에 사용되는 네온(neon) 가스의 70%를 우크라이나에서 공급하고 있었다. 네온가스는 대기 중에 존재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강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하고 있었다(중앙일보, 2022년 5월 14일자; 2022년 6월 6일자). 이와같이 이번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생산 체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 4) 금융 제재로 인한 효과

전쟁이 일어나자 서방세계는 먼저 SWIFT(국제은행간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하여 달러로 이루어지는 모든 국제거래를 마비시켜 세계 경제 네트워크에서 고립시켰다. 이 조치로 인하여 러시아는 루블화의 가치 하락, 달러부족으로 디폴트 가능성,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주식시장 붕괴, 경제성장의 악화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 러시아의 Tank에 대응하는 서방세계의 Bank의 효과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루블화로 결제를 요구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력을 가했고, 러시아에 투자했던 기업들은 자금순환의 어려움, 러시아 디폴트 발생 시의 경제적 손해, 철수할 경우 국유화 압력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 5) 교통망 제한으로 인한 문제

우크라이나는 지형이 평탄하여 교통 장애가 거의 없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 화물차의 유럽 내 운송사업을 금지함으로써 육상 교통이 단절되었고, 철도를 통한 수출입은 주변 국가 간 노선 폭의 차이로 인하여 이송 시간이 많이 발생하는 불편함이 있다(Wolmar, 2009, 배현역, 2019:448). 우크라이나의 수출입은 흑해와 아조프해에 면해 있는 항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아조프해와 흑해 봉쇄로 수출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서방세계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항공기의 러시아 영공 통과금지 및 러시아와의 항공교통 중단을 결정했는데(2022.3.4), 이로 인하여 항공노선의 우회로 인한 운송시간과 운항거리 증가로 운송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노르웨이에서 수입되었던 연어 가격의 상승, 유럽으로 가는 항공요금 상승, 석유값 상승에 따른 운송요금 상승, 수출과 수입의 화물비용 증가 등이 발생하고 있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지리교육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틀은 National Geography Standards (1994)의 4가지 관점(공간적 관점, 생태적 관점, 역사적 관점, 경제적 관점)을 활용했다. 먼저 문제인식을 위하여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적 관점과 역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생태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 파급 효과와 영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공간적 관점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위치적 특성, 자연지리적 특성,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측면으로 러

시아의 완충국 확보 노력과 EU와 NATO 확장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그리고 흑해가 러시아에 가지는 중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역사적 관점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역사적 관계와 러시아 제국과 구소련의 팽창정책, 그리고 러시아가 침공 이유로 삼은 민족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생태적 관점으로는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의 연쇄 반응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연쇄 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넷째, 경제적 관점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연쇄 반응을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과 곡물 문제, 반도체 등 공업 부문, 금융망 퇴출과 교통망 단절 등의 서비스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의 4가지 관점은 하나의 현상(국제지역분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에 유용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틀로 국제지역분쟁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에 학교급별이나 학습상황에 맞는 교수 학습이나 교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의 타당성, 자국민의 외국 거주와 자국민이 거주하는 지역 편입 시도의 타당성, 세계화된 현실에서 일부 지역에서의 분쟁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지정학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상황 비교, 전쟁에 대한 세계의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지역분쟁에 대하여 지리교육적 접근방법의 틀을 구축하는 것은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지리교육적 접근을 쉽게 하며, 지리교육내용과 접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지역분쟁에 대해서 타자와 방관자로서가 아닌 나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나의 일상생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연쇄작용 측면(정치적, 경제적, 인구이동 측면 등), 국가 간 문제해결 방법으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사고의 기회, 21세기 네트워크 사회에서 서로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과연 전쟁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한 사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등 국제지역분쟁의 사례는 지리교육의 학습 소재와 사례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註

- 1) 크림반도 : 면적 27,000km<sup>2</sup>, 인구 245만 명(2014년), 러시아인 58.5%, 우크라이나인 24.4%, 기타 17.1%.(1783년 러시아제국, 1921년 소련, 1954년 우크라이나에 편입, 1991년 우크라이나의 영토, 2014년 러시아 합병).
- 2) 스타링크(Starlink)는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전 세계 대상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로, 2019년 5월 60기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604기가 저궤도에 발사되어 있으며, 터미널(접시형 수신기)만 있으면 인터넷이 가능하여 우크라이나의 통신망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2년 12월 31일자).

참고문헌

고재남, 2012, “탈냉전기 흑해지역 전략환경의 변화와 미국, EU, 러시아의 대응,” *중소연구*, 36(3), 235-282.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구동희, 2010, 「세계의 분쟁 : 지도로 보는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서울: 푸른길.

구자정, 2023, 「우크라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아서」, 서울: 박영사.

권혁재, 2006, 「지형학(제4판)」, 파주: 법문사.

김민성·유수진·전영권, 2018, “초등학생용 청송세계지질공원 교육교재 개발 및 적용,”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1), 192-205.

김성진, 2014, “몰도바-트랜스드니에스트리아 분쟁의 배경과 전개” *국제지역연구*, 18(1), 27-52.

김원희, 2009, “범 흑해지역에 대한 EU의 확대 전략” *동유럽 발칸연구*, 23, 227-250.

김인아, 2018, “거주지역적 특성이 미얀마 종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여카잉 무슬림과 끼잉족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5(0), 333-357.

김진욱, 2020, “주관적 경계선과 물리적 충돌: 중일 해양영토 분쟁에 대한 인정투쟁론적 접근” *지역과세계*, 44(4), 69-98.

김현승·최재영, 2017, “지리교육에서 카스피 해 자원 분쟁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지리학회지*, 6(2), 101-112.

노용석, 2012, “말비나스 영유권 분쟁의 역사와 현황 -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14(1), 57-80.

박광섭, 2015, “남중국해 스카버러 숄 영유권을 둘러싼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양상의 본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와 분쟁해결 접근방식의 차이” *아시아연구*, 18(1), 161-200.

박만준·마민호, 2019, “중러 국경분계선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동인연구 -시대별 설명변수들의 통시적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3(3), 81-120.

박배균, 2013, “영토교육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 모색,” *공간과 사회*, 44, 163-198.

박정경, 2007, “아프리카: 식유를 둘러싼 나이저 델타 지역의 분쟁” *국제지역정보*, 157(0), 39-41.

박정호, 2005, “북 카프카즈(North Caucasus) 지역분쟁의 정치, 경제적 요인 분석 -체첸 분쟁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21(2), 47-67.

변웅, 2014, “북아프리카 사헬지역 국제분쟁분석 및 전망: 2012~2013 말리사태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3(2), 173-198.

석두식, 2020, “중국의 지역패권화 가능성과 한계 -남중국해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군사논단*, 104(0), 118-140.

송언근, 2016, “답사 코스 개발을 통한 역사적 주제의 시·공간적 접근 -이순신 장군 해전지 답사 코스 개발을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4), 131-149.

안정은·권주현, 2021, “분쟁에 의한 접경지역에서의 3자 개입에 따른 평화협력 향후 과제 : 키프로스와 북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3(2), 113-148.

양병일, 2015, “지리적 사고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재 개발의 전략” *사회과교육*, 54(4), 103-114.

양병일, 2017, “사회과 교육에서 고차적 사고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재의 개발,” *사회과교육*, 56(4), 113-130.

윤영미, 2005, “탈냉전기 카스피해 유전을 둘러싼 국제 갈등 체제의 쟁점” *사회과학연구*, 13(2), 348-376.

윤영미, 2010, “북극해 해양분쟁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 *한국시베리아연구*, 14(2), 1-42.

이근관, 2010,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의 국제영토법리의 비판 -카메룬-나이지리아 간 영토분쟁사건(2002)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17(1), 1-27.

이동민, 2021, “지리 기반 융합형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의의에 관한 연구 - 「지도와 지리학으로 읽는 제2차 세계대전사 강좌를 사례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4),



- 47-63.
- 이동민, 2022, “대러시아 관계에 있어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분열에 대한 다중스케일적 접근 -드니프로강은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지정학적으로 분단했는가?-,” 문화역사지리, 34(3), 67-87.
- 이동울, 2015, “중국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한 전략과 요인: 다오위다오(釣魚島)/센카쿠(尖閣)열도 분쟁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39(1), 49-87.
- 이상균·최희·윙티탄프영·김종근, 2017,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영토교육,” 한국지리학회지, 6(1), 1-13.
- 이상현·박윤주, 2015, “에콰도르-페루 국경 분쟁의 결과와 의미,” 이베로아메리카, 17(1), 1-26.
- 이영형, 2015, “조지아의 갈등구조와 러시아의 지정전략” 분쟁해결연구, 13(3), 257-290.
- 이유신, 2007, “2006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스분쟁 정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인가?” 중소연구, 31(1), 165-186.
- 이유신, 2007, “2006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의 원인에 대한 논의” 중소연구, 31(1), 165-189.
- 이은구, 2002, “카슈미르 문제의 발단과 인도-파키스탄의 분쟁” 국제지역연구, 6(4), 81-108.
- 이정록, 2005, 「세계의 분쟁지역, 서울: 푸른길
- 이정록, 2019, 「분쟁의 세계지도, 서울: 푸른길
- 이주연, 2021,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입장” 중소연구, 44(4), 329-369.
- 이한방, 2002, “국제분쟁지역의 유형 및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99-215.
- 인남식, 2011, “중동지역 종파분쟁에 관한 연구: 이라크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0(2), 171-198.
- 전광호, 2011,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종식 가능성 연구: 로버트 하조의 논의 분석” 국제지역연구, 15(2), 25-47.
- 전광호, 2017, “인도-파키스탄 전쟁: 분쟁의 국면 전환과 제5차 전쟁의 회피,” 세계지역연구논총, 35(3), 71-105.
- 전종한·김영래·홍철하·장익선·한희경·최재영·천중오·노재윤, 2015, 「세계지리 경계에서 권역을 보다, 서울: 사회평론
- 조상현·금상문, 2013, “남북 수단 분쟁 연구” 국제지역연구, 17(4), 155-179.
- 지상현, 2014, “전쟁의 공간적 확산에 관한 연구: 제1차 세계대전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9(1), 57-76.
- 최영진·백일순, 2021, “평화·통일교육에서 유연적 영토교육의 중요성”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9(4), 31-46.
- 허승철, 2011, 「우크라이나 현대사 1914-2010,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Brzezinski, Z, 1997, *The Grand Chessboard*(김명섭 옮김, 2000, 「거대한 체스판, 서울: 삼인).
- National Geographic Research & Exploration, 1994, Geography Education Standards Project, *Geography For Life - National Geography Standards, 1994 -*.
- Salter, C.L., Hobbs, J.J., Wheeler, J.H., Kostbade, J.T., 2000, *Essentials of World Regional Geography*, 3rd Edition, Harcourt, Inc.
- Stoltman, J. and DeChano, L., 2002, Political Geography, Geographical Education, and Citizenship, *Geography, Culture and Education*(edit by Rod Gerber, Michael Williams), GeoJournal Library, 127-144.
- Wolmar, C., 2009, *Blood, Iron & Gold*, Atlantic Books Ltd.(배현 옮김, 2019, 「철도의 세계사, 서울: 다시봄).
- Zeihan, P., 2017, *The Absent Superpower*(홍지수 옮김, 2019, 「세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 서울: 김앤김북스).
- 造事務所, 2008, 圖解世界史が簡單にわかる戦争の地圖帳, 東京: 三笠書房(안정미 역, 2020, 「지도로 읽는다 한눈에 꿰뚫는 전쟁사도감, 서울: 이다미미디어).
- 黒川祐次, 2001, 物語 ウクライナの歴史(안진주 역, 2022,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 파주: 글항아리).
- 경향신문, 2022년 5월 30일자, “우크라이나 서부서 ‘우크라이나어’ 학습 열기, 러시아 침공에 대한 저항”
- 뉴시스, 2022년 3월 2일자, “우크라 韓, 우리 지명을 침략국 러시아식 표기 하다니”
- 문화일보, 2022년 7월 23일자, “우크라 곡물 수출 합의 식량난 해소 도움 되겠지만 불씨 여전”
- 연합뉴스, 2022년 4월 17일자, “러 에너지 의존하는 유럽 추가 제재 ‘머뭇’”
- 연합뉴스, 2023년 1월 19일자, “독일 ‘이제 러시아 필요없다’ 에너지 완전 다각화 선언”
- 중앙일보, 2022년 3월 30일자, “푸틴에겐 패권 경쟁이나 자유진영엔 가치 경쟁(이양구)”
- 중앙일보, 2022년 5월 14일자, “우크라이나 전쟁 후폭풍, 공급 줄어든 내은 가격 5배로 뛰어”
- 중앙일보, 2022년 6월 3일자, “러시아군 장악 지역의 변화”
- 중앙일보, 2022년 6월 6일자, “우크라이나와 반도체 공급망(장하석)”

조성욱

중앙일보, 2022년 8월 12일자, “러, 우크라이나 미래 암흑 만들었다”

중앙일보, 2022년 12월 31일자,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스타  
링크·드론으로 반전 이끌어”

한겨레, 2014년 4월 29일자, “우크라이나 러시아계 인구 비율”  
한겨레 21, 2022년 3월 12일자, “러시아 경제제재 누가 오래  
버틸까?”

한국일보, 2022년 5월 2일자, “우크라이나 떠난 피란민 530만명  
유럽 인구구조 변화 부를 수도”

한국일보, 2022년 6월 9일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일보, 2022년 8월 3일자, “러시아, 고유가로 되레 호황?  
서방 제재로 경제 크게 붕괴”

News1, 2022년 4월 28일자, “톨스토이 이전 없다-우크라이나, 러  
시아 관련 지명 모조리 바꾼다”

News1, 2022년 4월 14일자, “NATO 가입국 현황”

News1, 2022년 9월 28일자, “러시아와 유럽 간의 천연가스  
노선”

나무위키, <https://namu.wiki/w/우크라이나>

다음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3665b001>

외교부, <https://www.mofa.go.kr>

GRID-Arendan, <https://www.lu.lv/sgc2011/eng/next-year-to-lviv/>

Peace Education Handbook for Educators, Council of Europe, [https://ifm-sei.org/files/up/ifm-sei-peace-education-handbook\\_v11\\_web.pdf](https://ifm-sei.org/files/up/ifm-sei-peace-education-handbook_v11_web.pdf)

교신 : 조성욱,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  
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

투고접수일: 2023년 2월 28일

심사완료일: 2023년 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22일